

가족끼리...아버지가 아들 상대 ‘불효 소송’

“부양 소홀...20년간 키워준 양육비 1억4400만원 달라”

광주시법 “양육은 부모 의무” 기각...원고 패소로 끝나

얼마 전 종영한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방송 드라마는 ‘불효 소송’이라는 다소 황당한 소재를 설정,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기몰이를 했었다. 당시 드라마 속 아버지는 자식들을 상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갚으라고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드라마 속 설정과 비슷한 상황이 광주지방법원에서 벌어졌다.

A씨는 지난 1월 법원에 아들을 상대로 ‘불효 소송’을 냈다. 성인이 되기까지 아들을 20년 간 키워준에도 부양을 소홀히 했으며 하루 2만원씩 20년간의 양육비 1억44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게 소송 골자다.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는 아버지 고통을 아들이 외면하고 뇌혈액과 돈을 주지 않는 등 ‘불효’를 저질렀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언뜻 ‘아들

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대하느냐’는 식의 소송으로 압혀질 수 있는 모양새다.

‘불효 소송’의 결과는 아버지의 패소로 끝났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황정수)는 20일 A씨의 아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민법상 양육 의무를 지기 때문에 아들이 미성년일 때 아버지로부터 부양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아버지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양금 반환 청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불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버지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가정의 딸을 맞아 자식에 대한 양육과 부모에 대한 부양 등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해석도 적지 않다.

자식에 대한 양육은 천륜이자 부모 의무라는 점을 확인한 재판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남로에 ‘민주 기사’ 등장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 민주기사의 날’ 행사에 참가한 광주지역 택시운전기사들이 지난 1980년 5·18 당시 차량 시위를 재현하고 있다.

5·18 35주년 ‘민주 기사의 날’ 행사 개최

계엄군 만행 격분...당시 차량 시위 재현

35년 전인 1980년 5월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계엄군들이 무고한 시민을 곤봉 등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이 소식을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격분했다. 시민들은 ‘가자 도청으로’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계엄군과 시민들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40분께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출발한 택시· 시내버스 200대도 헤드라이트를 켜 채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가세, 계엄군의 저지선을 전일빌딩 앞까지 후퇴시켰다.

당시 차량 시위는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한 운전기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

른바 ‘민주 기사의 날 차량 시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5월 항쟁의 최대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죽거나 부상을 입었지만 시민의 투쟁 의지는 더욱 굳건해지게 됐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2015년 5월 20일, 시민들의 투지와 단합의 상징인 차량시위가 금남로 일대에서 다시 한번 재연됐다. 시민들은 이날 택시·자가용 등 40대를 동원, 무등경기장에서 출발해 광주역·유동사거리·옛 전남도청 앞길까지 4.5km 구간을 행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 흥복학원 이사 6명 자격상실

시교육청, 임시이사 선임 요구

이홍하씨가 설립한 흥복학원 이사들이 광주시교육청의 임원 승인 취소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임시이사 파견이 탄력을 받게 됐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날 흥복학원 이사 9명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6명은 기각하고, 3명은 인용했다.

이는 흥복학원 이사 6명은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로 임원 자격을 잃게 됐고, 3명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이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이 결과에 따라 이사회 유지 여부는 바뀔 수 있다.

이들은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씨 소유의 토지를 사들이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해질녘 19:34

달돋이 08:08
달질 22:22

둘이 하나로...‘부부의 날’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1/28	보성	맑음	8/27
목포	맑음	12/24	순천	맑음	12/28
여수	맑음	15/25	영광	맑음	9/26
나주	맑음	7/29	진도	맑음	10/24
완도	맑음	12/26	전주	맑음	10/27
구례	맑음	7/28	군산	맑음	11/23
강진	맑음	10/26	남원	맑음	8/27
해남	맑음	10/25	흑산도	맑음	13/20
장성	맑음	7/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남서~서 0.5
남부 먼바다	북서~북 0.5~1.5	남서~서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
남해 먼바다(동)	북서~북 0.5~1.5	서~북서 0.5~1.0
서부 먼바다(서)	북서~북 0.5~2.0	서~북서 0.5~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4:23 16:21	09:29 21:31
여수	11:03 23:36	04:58 17:02

◇주간 날씨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14/29	15/26	15/29	16/29	15/31	16/31	16/30

◇생활지수

	수면	70
	운동	60
	빨래	90

518만개 LED燈 장식 빛축제장

에펠탑 등 세계 유명 조형물 설치

광주 우치공원 새 관광명소로

518만개의 전구가 일제히 빛을 발하는 LED 축제를 연중 즐길 수 있게 됐다.

광주우치공원이 LED 조명을 이용한 빛축제와 놀이기구 새단장, 동물원 무료 입장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최고의 휴양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20일 우치공원관리소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우치공원 입구 2만5000㎡ 부지에 518만 개의 LED 야간 경관 조명을 이용한 빛축제가 개장한다.

빛축제장엔 무등산 서석대를 축소 한 주상절리·에펠탑·금문교 등 100여 개의 세계 유명 조형물이 미니어처로 제작·전시된다. 이 미니어처엔 형형색색의 LED가 덧씌워져 축제장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또 폐품을 모아 만든 로봇·공룡·사슴·기린·소·닭 등 20여개의 조형물도 전시되는데,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빛축제장은 접근성이 용이, 가족 또는 연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패밀리랜드 놀이시설도 새롭게 태어난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원시설개선 사업 일환으로 1억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쌍봉보트를 전면 보수한다. 쌍봉보트는 패밀리랜드 놀이시설 중 나들이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설이다. 시는 지난해 청룡열차를 전면 보수했었다.

이와 함께 우치동물원의 관람 환경 개선과 동물복지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무료 입장에 이어 쇠창살과 콘크리트 바닥으로 지어진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를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동물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꾼다.

시는 올해 10억원을 들여 원숭이 우리와 코끼리 방시장 등을 개선하는 등 향후 5년간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정남 시 우치공원관리소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로 5만원 이상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3등 - 아이패드(3명)

* 4등 - 족욕기(10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리지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